



이 상 용 / 향촌 조경수,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50
 (0339) 353-0747

조경수의 선택과 식재상의 이모저모

조경수 재배에서 어느 수종의 어떤 묘목을 어떻게 식재하여 재배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참으로 어렵고 광범위하여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누구하나 자신있게 답할 사람이 없겠거니와 있다하여도 그것이 참이나?하는 의문이 또 남게 된다.

여기에서 필자는 경험에 의한 일각의 견해를 밝혀 처음 재배하려는 농가와 경영자에게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식재 수종의 결정

어느 수종을 식재하여야 전망이 좋으나?하는 문제는 식재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므로 쉽게 대답할 수 없겠으며 다만 어떠한 조건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따라 적합한 수종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식재수종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분석한다.

- ① 식재지의 면적(규모)
- ② 투자액의 정도
- ③ 식재후 자금회전 연도
- ④ 노동력의 집약도
- ⑤ 토양과 입지조건

위의 사항에서 식재지의 면적이 크고 투자액이 충분하다면 어린묘목보다 2~4년생의 중간 묘목을 택할 것이며 가능하면 분뜨기를 하여 완전하고 확실한 식재지를 조성할 것이다. 투자액이 적고 자금회전 연도를 짧게 하려면 회양목, 개나리, 쥐똥나무, 병꽃나무, 철쭉등의 단기 수종을 택하고, 묘목생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금회전 연도를 길게 잡고, 좁은 면적에서 최대의 수확을 얻고자 한다면 소

나무, 향나무, 독일가문비, 백송, 주목등의 침엽수와 칠엽수, 노각나무 등의 고급수종이면서 장기수를 택하여야 유리하다.

한편 경제성보다 취미활동과 감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반송이나 다행송 및 소나무 수형을 연구하여가며 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한 토양의 입지조건에 따라 식재 수종이 달라지게 되는데 토양이 너무 습하여 다른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토양이라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이 알맞으며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면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등의 건조에 잘 견디는 수종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묘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노동력이 부족하면 잡초에 치지 않는 속성수를 식재해야 할 것이다.

조경수재배에서 고급 수종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격은 적으면서 값비싼 수목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급수목의 장점

은 주당가격은 높으나 다량판매
가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예를
들면 벃나무, 회화나무, 중국단풍
등은 나무 가격은 저렴하나 다량
출하가 가능하여 수종마다 재배
상의 장, 단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식재 수종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한
다.

1) 대중성이 있는 수종

묘목의 가격 및 성장속도, 그
후의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경
우 대중성이 있는 수종이어야 판
로가 유리하다.

외국에서 도입된 특수한 수종
이라든가 자기만이 아는 희귀한
수종이라 하는 것은 출하시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중성이 있는 수종이라함은
그 나무의 우수성을 벌써 여러 사
람에게 공감을 얻은 수종임을 유
의하자.

외국수종 혹은 특수한 수종의
개발은 여러차례의 적응력과 우
수성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
기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된다.

2) 우리나라의 자생수종

자생수종이라하면 우리나라의
임야에 생태계를 이루는 수종이
므로 우리의 기후 풍토에 알맞은
수종을 말하며 외국에서 도입되
어 잘 적응하는 귀화 수종까지 생
각해도 무리는 없겠다.

앞으로도 그러하겠으나 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조경을 이끌
어가는 학자 및 조경가들이 한국
에서 자생하는 우수한 수종을 개

발하여 발전시키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일본목련은
잎이 고무나무처럼 넓고 시원하
며 꽃의 향기도 매우 좋다. 열매
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편이나 조
경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일
본목련이므로 일본이라는 거부감
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향토수목

향토수목이라하면 식재지 지방
에서 자생하는 수목종자를 채취
하여 묘목을 생산한 후 그 지방에
조정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따뜻한 난대지방(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생육이 좋으나 온
대지방(경기·강원)에서는 적응
이 되지 않는 수종이 얼마든지 있
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식재할 지방에서
생산된 묘목이 적응력이 좋으며
추운지방에서 더운지방으로 이동
식재됨은 무난하겠으나 더운지방
에서 추운지방으로 이동 식재하
며 수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한
해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

4) 재배 수목의 주기성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때문에
어느 수종을 식재하여 높은 소득
을 얻었다하면 거의 뒤따라 식재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수목의
수요공급에서 수종별로 과잉과
품절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
서 수종선택은 남이 고소득을 보
았다하여 같이 따라 식재하지 말

고 오히려 그의 반대 방향으로 겹
토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철쭉의 가격이 너무
좋고 회양목 가격은 너무 낮더니
철쭉 심을 곳에 저렴한 회양목을
군식하게 되고, 철쭉재배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철쭉
은 가격이 하락하고 회양목은 가
격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어느 수종이 많이 심겨지고 적
게 심어져 있는가의 관찰은 조정
수지 뒤의 수목매물 정보를 조사
하여 예측하면 감각이 와닫지 않
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예를 한수종 더 들면 은행
나무는 우리나라의 수목중에 유
용한 수종이다. 여행길에 눈여겨
보면 느티나무, 벃나무등의 재배
지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은행나무
를 식재하여 잘 재배되는 곳은 보
지 못하였다. 분명 몇년이 더 지
나가면 은행나무 식재에 열을 올
릴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긴 안목으로
앞서가야 하겠다. 이러한 안목에
서의 주기기간은 단기수목에서 3
~5년 장기수목에서는 5~10년 정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전망있는 수종의 예측

전망이란 하나의 예측인데 이
예측에 수목의 수요공급량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년에 이
르기까지 경제성장이 급변하여
수목은 부족하고 조경은 해야되
겠고하여 급히 서둘러 재배한 것
이 속성수인 낙엽활엽수 쪽이다.

“
**충실한 묘목이란 묘목의 규격도 중요하겠으나
 나 뿌리의 발달정도, 수형, 동해 및 병충해,
 가식 기간정도의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현재 상록수의 생산이 부족한 형편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서 더욱 상록수가 요구된다고 보면 상록수중에는 어쩔수 없이 상록침엽수가 주(主)가 되겠는데 이에 대중적인 수종은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가이즈까 향나무, 서양 측백나무, 백송, 섬잣나무, 반송, 독일가문비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소나무는 산림훼손지역에서 굴취하여 당분간은 공급에 차질이 없겠으나 긴 안목으로 재배해야 되고, 스트로브 잣나무는 공해에도 매우 강하며 적응력도 강하다. 서양측백은 울타리용 혹은 단독수로 식재함에 따라 계속 재배해야 할 것이며 섬잣나무, 반송 및 다행송은 참으로 고급수종이 아니던가?

앞으로 서해안의 신도시 개발이 열림에 따라 해송, 모감주나무, 해당화 등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기타 활엽수 중에 몇가지 수종을 들면 한국자생의 노각나무는

수피가 참으로 아름답고 수형이 차분하며 꽃이 좋아 각광을 받을 것이며, 마가목은 열매의 모양이 아름답고 수목중 녹음이 제일 빠르고 단풍이 좋은 나무이며, 대중성이 큰 산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회화나무를 비롯한 속성수 재배에서는 다른 수종에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수형손질에 힘써 재배하여야 하며, 산딸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살구나무, 복자귀, 젓나무, 쪽동백, 중국단풍, 피나무 등은 중부지방에서 식재하여 수형 좋게 재배해 볼만하다.

층층나무는 꽃도 좋고 녹음의 모양이 아름다워 재배 및 조경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도시미화를 위해 많이 심겨지면 하는 바람이며, 참나무류는 고시단가도 좋고 또 많이 심겨질 나무이다. 그중 떡갈나무를 다량으로 재배하여 놓으면 전망이 좋을 듯한데 확실한 종자구입이 어렵다. 목련, 회양목, 천죽류는 워낙 다량으로 요구되므로 꾸준히 재배되어야 하겠다.

3. 식재묘목의 결정 및 구입 요령

묘목의 식재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경영방식에 따라 그 규격이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성목이하의 중간묘목과 조경에 공급되는 성목의 가격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제초관리가 손쉬우며 자금회전연도가 짧은 기간내에 수목을 출하하려면 1년생의 어린 묘목보다 2~4년생 즉 1.5~2m 정도의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여러 모로 보아 유리하다.

따라서 식재하여 성목으로 출하할 목적으로 묘목을 구입한다면 묘목의 가격이 높다하여도 충실하고 규격이 큰 묘목을 구입한다. 어려서 묘목대금의 몇백원의 차는 식재한 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몇천원을 좌우하는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실한 묘목이란 묘목의 규격도 중요하겠으나 뿌리의 발달정도, 수형, 동해 및 병충해, 가식 기간정도의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묘목의 구입처는 농장에서 직

접 구입하든 묘목상회에서 구입하든 관계가 없다 하겠으나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묘목 굴취과정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실패율이 적기때문에 묘목 구입자가 직접 간섭하는 것이 상책이다.

가급적이면 오늘 묘목을 굴취, 운반하여 가식과정을 거치지 말고 내일 식재하는 방향을 모색하자. 이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묘목을 굴취하여 얼마간 가식되어 있던 묘목인지를 몰라 묘목의 활력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묘목의 식재

묘목을 식재하여 우선 활착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식재 시기이며, 다음 위에서 기술한 묘목의 활력정도라 하겠다.

묘목의 식재시기는 봄 일찍 얼었던 흙이 바로 풀리면서 식재함이 좋다. 식목일이 4월 5일로 되어 있지만 3월중에 묘목식재를 마치도록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없으며, 기일이 늦어짐에 비례하여 실패율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목일은 3월 25일경으로 앞당겨져야 옳지 않겠는가도 생각된다. 또한 묘목식재후 활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식재지에 거름 넣기에도 관계가 크다.

묘목을 식재하여 성장과정중에 밑거름넣기를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드물고 어려워 식재전에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복합비료)를

함께 넣어 식재하기 마련이다.

식재 전해의 늦가을에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를 동시에 충분히 넣고 갈아두었다가 봄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화학비료의 거름넣기는 적어도 식재 10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넣은 비료가 땅속에 들어가 식물이 흡수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려면 무더운 여름이면 3~4일, 3~4월달 정도의 온도에서는 적어도 10일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화학비료를 넣고 바로 묘목을 식재하면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어 절이는 원리와 같은 삼투압현상에 의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식재 당시 같이엷고 식재하는 경우에는 거름넣기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활착된 후에 중간 거름 넣기를 고려하자.

나무재배에서 거름주는기는 늦가을 낙엽후부터 잎피기 전의 휴면기간 내에 1회에 걸쳐 충분한 거름넣기를 끝내도록 한다. 식재지에 거름넣기의 양은 일반작물의 두배정도 즉 10a(300평)당 퇴비 2000kg 복합비료 3~4포정도 충분히 넣는 것이 좋다.

또한 묘목의 식재에서 활착율과 관계가 큰 것은 식재후 흙덮고 밟아주기이다.

죽은 시체와 나무는 묻고 꼭꼭 밟아 줄수록 좋아한다는 옛말을 기억하자. 가뭄피해가 심할 것 같으면 묘목을 약간 깊이 심고 이에

반할 경우에는 전해에 묻혔던 곳보다 약간 깊게 심고 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꼭꼭 밟아주자.

5. 제초관리

제초관리에서 가급적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김매기에 의하면 참으로 좋겠으나 인건비 관계로 제초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잡초 발아억제제인 라쏘나 마세트는 식재후 3일내에 뿌려 주어야 토양의 지표면에 막이 생겨 발아를 억제하여 제초효과가 크며 그후의 사용은 효과가 매우 떨어진 다.

잡초가 발생하여 우거지면 살초제인 그라목선 혹은 글라신 같은 식물전멸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잡초발아 억제제인 라소수화제를 같은 양으로 혼합하여 뿌려주면 발아되어 생장된 잡초는 죽고 또한 앞으로 발아될 잡초종자가 땅속에서 발아되지 못하여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살초제의 사용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여 수목의 줄기에는 관계 없으나 잎에 닿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특히 은행나무,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은 피해가 크다.

제초제의 사용은 잡초가 10cm 가량 자랐을때 해주는 것이 경제 적이며 물론 자주하여 주면 더욱 좋겠다.

제초제 사용에 의한 제초방식은 식재후 적으면 3회 많으면 5회 정도면 무난하다.